

정례브리핑

2020.5.6(수) 10:30, 여상기 대변인(통일부)

안녕하십니까? 5월 6일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관관 동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관문점 견학 재개 준비 상황점검 차원에서 관문점 지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부내에서 업무를 볼 예정입니다.

차관은 오늘은 부내에서 업무를 보고, 내일은 내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는 차관회의에 참석한 후 오후 3시부터 남북회담본부에서 개최되는 인도협력 민관정책협의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GP 총격사건 현재 이제 한 3일쯤 지났는데요. 그 3일 동안 북한이 국방당국 간 채널 외에 다른 채널로 혹시 사건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적이 과거에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여기에 관해서 북한이 입장을 발표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과거의 선례를 보면 북한이 정치적 논란이 있거나 이런 논란이 많을 사항에 대해서는 아예 반응을 보이지 않은 적이, 경우가 아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반응을 보인 적이 아주 없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기는 한데 그럴 경우에는 주로 어떤 경우였나요?

<답변> 반응을 보인 경우에 대해서는 제가 준비가 돼있지 않은데 조사를 해서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오늘 새벽에 '비욘드 패러렐'이라는 전문 사이트에서 '평양 인근 신리의 어떤 시설이 미사일 관련 시설로 추정된다.'라고 분석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신리라는 곳의 어떤 군사관련 시설이 이전에 있었는지, 이것을 당국이 꼭 미사일 관련 아니어도 인지하고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또 비욘드 패러렐이 분석한 그런 내용이 실제로 미사일 관련 시설의 특징과 부합하는 면이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예, 그 관련보도를 보았습니다. 여기에 북한의 군사정보하고 관련해서는 통일부가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통일부가 남북 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대북 제재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근데 청와대에서는 북한이 호응하면 바로 실행할 준비가 돼있다고 했는데 이게 미국과 협의가 된 사안인지 통일부가 이 부분에서 파악하고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답변> 질문이 앞부분이 좀 마스크 때문에 명확하지 않은데요. 지금 정부가 철도 연결과 관련해서 미국과 협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 인가요?

<질문> 예.

<답변> 지금 최근에 동해에서 한 것은 우리 측 지역이기 때문에 미국과 협의할 대상이 아니고 향후에 남북 협력과, 남북 철도협력과 관련해서 상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현재로는 제가 말씀드릴 사항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질문> 판문점 견학 재개 언제부터 하는지 결정된 바가 있나요?

<답변> 구체적인 날짜는 지금 정확히 딱 정해져 있지 않은데요. 최근의 방역상황이 중대본에서 방침이 결정됐고, 오늘 장관께서 현장을 점검하고 나면 조만간 날짜가 구체적으로 정해질 것 같습니다.

<질문> 그리고 연락사무소 지금 가동 중... 운영 잠정중단 된 지 100일, 석 달 넘어서 100일 향해 가고 있는데 언제쯤 정상화할 계획이신지 아니면 북측에 정상화하자는 제안을 할 계획이 있으신지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예, 두 가지, 그 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운영은 중단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단지 개성에서 근무지를 서울로 옮겼기 때문에 좀 더 엄격하게 말씀드리자면, 공동연락사무소 서울

근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공동연락사무소의 개성 복귀 문제는 '코로나19 상황이 완전히 해소되면'이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 조건이 이루어지면 적정한 시점에 북측과 협의해서 결정될 것 같습니다.

<질문> 관련해서 추가인데요. 그러면 완전종식이라는 게 과연 지역사회 감염 0인지, 아니면 아예 발병이 0인지, 아니면 지금 걸린 사람들이 다 나을 때까지인지 그 시점을 명확히 어떻게 잡고 계시나요? 정부에서는.

<답변> 그것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상대가 있기 때문에 북측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고, 과학적으로 엄격히 말씀드리긴 힘들겠지만 적어도 일반인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상식적 수준의 객관적으로 코로나19가 진정되었다고 보면 그때 남과 북이 협의해서 결정하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오늘 장관님이 판문점 외에 다른 곳도 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견학, 판문점 견학을 위해서 현장점검차 가신 거죠?

<답변> 예.

<질문> 그러면 판문점 외 다른 지역도 견학으로 개방하실 예정이 있으신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예, 장관께서 이번 판문점 지역을 가게 되는 곳에는 판문점을 포함해서 파주지역에 있는 철거 GP도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이 파주

지역 철거 GP는 DMZ 평화의 길에 포함이 돼있는 것으로, 지역적으로 판문점 인근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판문지역을 방문하는 점에 판문점 견학 재개와 또 이에 따르는 방역상황, 코로나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차원에서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지금 북한지역 코로나 진행상황이 어떤지 따로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답변> 북한지역 코로나19 전체적인 상황은 북한당국의 발표, 또 WHO의 발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나가고 있습니다.

<질문> 장관님 판문점 방문과 관련해서 사흘 전에 발생한 북한군의 GP 총격사건은 전혀 고려할 사안이 아니었는지, 고려했다면 어떤 식으로 결론이, 판단을 하셔서 판문점 방문을 결정하시게 됐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장관의 이번 판문점 지역 철거 GP 방문은 방금 질의하신 지역, GP와는 지리적으로 많이 떨어져있고 또 사전에 미리 예정이 돼있었던 것이고, 또 이번에 판문점 견학 재개 준비상황 점검차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부전선인 GP와의 관련성은 크게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질문> 이번에 방문하시는 지역과 사건이 발생한 지역이 공간적으로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답변> 예, 지금 단순하게 지리적으로 떨어져있다는 그 문제 하나뿐만 아니라 오래 전에 예정되었고 또 판문점 견학 재개를 앞두고 우리

가 소속 주무부처로서 해나가야 될 일들을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번 판문점 지역 GP를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질문> 업데이트 차원에서 여쭙보는 건데요. 우리 민간단체들 대북지원 관련해서 추가승인한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보건, 북측과의 보건이나 방역협력 관련해서 지금 정부 내부적으로 준비 중이신 게 있나요?

<답변> 방역협력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최근에 추가적으로 반출 승인된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리고 북한과 방역협력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호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들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실행단계에 있는 것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그러면 향후에 북측이 호응할 어떤 적절한 시점 같은 걸 좀 보아가면서 추후에 제안할 계획도 있으신 거고요?

<답변> 그것은 호응이 있다면 호응에 맞게 제안을 하거나 또 아니면 북측이 제안하거나 그거는 조건과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대응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